

「그동안도 비록 명으로만
 해온 대졸여성의 취업준비
 을 해도 경기침체와 사무자동
 화의 여파로 더욱 좁아질 전
 망이다.

또 현재 대졸여성채용에
 형식적인 제한을 두는 기업
 체는 없지만 아직도 보이지
 않는 수많은 장벽이 존재하
 고 있어 여성직원은 여전히
 어려운 실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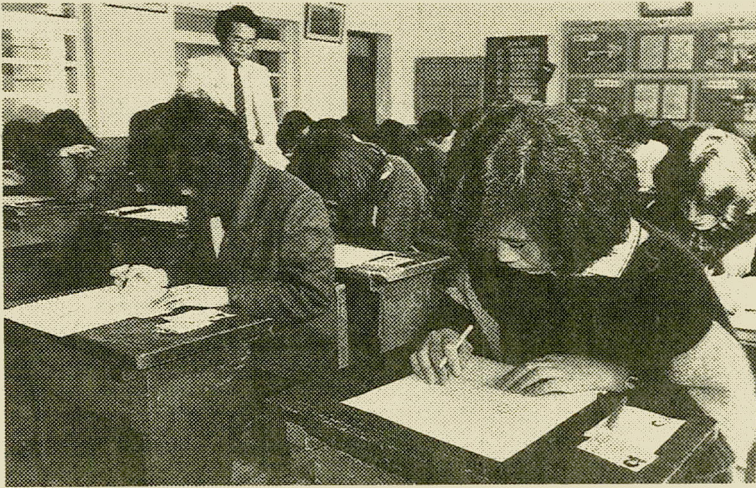
따라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
 대생들이 치밀한 시험준비와
 함께 취업정보수집도 게을리
 하지 말아야 한다.

올해도 현대와 삼성, 럭키
 금성, 대우 등 대기업들은 남
 녀 구분없이 똑같이 응시기
 회를 주고 사원을 공채할 예
 정인데 여성채용인원이나 각
 그룹마다 1백명만을 넘지 않
 을 것 같다. 재작년부터 남
 구별없이 공채를 실시한 삼
 성은 지난해 공채를 통해 1
 백여명을 뽑았고 현대와 럭
 키금성도 공채로 1백여명을
 채용했다.

특히 지난 85년부터 여성을
 만 파도 시험을 치르도록 해
 해마다 1백~2백여명의
 대졸여성을 뽑아온 대우
 을 해에는 남·구별없이 추
 선과 면접을 통해 신입사원
 채용할 계획.

이밖에 한국화학, 한국 I B
 M 지도 여성 인턴제도 하
 반기공채를 계획하고 있는데
 여대생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
 두지 않고 있다.

大卒여성 취업할곳 많아도 門 좁다



대기업 올해 百여명씩 채용 치밀한 시험준비 정보 중요

중소기업 컴퓨터지종능 도전해볼만

순조롭게 여대생이 공채를 실시하
 고 있는 포항제철, 한국전력, 그라나 이를 기관들도 R
 공사, 전기통신공사, 무역협회, OTC 출신 또는 군제대 남
 대하부영지흥공사들도 한번 성에게 5~10%의 가산점을
 준다고 있어 오소들은 '수많은
 뛰어난 실력을 갖추어야 한
 다.'

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
 니며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
 있는 면접에서도 남자와같이
 인성, 조직응답력을 중점적으
 로 본다'고 말한다.

이 밖에도 금융기관, 언론기
 관, 의류·화학·제조업회사들도
 사원을 모집한다. 이들 기관
 대부분이 공채로 인원을 충
 당하지만 수시로 학교에 추
 천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으
 므로 정확한 취업정보를 미
 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.
 취업정보가 부족할 경우
 취업정보기관을 방문 상담하
 는 것도 좋다.

노무부의 전문인력취업정
 보센터(☎9109)(한국경영
 자총협의회의 고용서비스센
 터)(☎0886)(한국여성개발
 ▲.....
 을 해도 대졸여성의 취업
 준비는 좁아질 전망이다. 치
 밀한 취업정보수집과 인사
 시험준비 끝마무리가 필요
 하다.

업으로 노동조합이 나스(☎4
 47)(을 이용할 수 있고) 리
 크루트 취업정보센터(☎40
 21) 같은 전문업체에서
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.

전문인력취업 정보센터의
 金永炫씨는 "불리한 여건하
 서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의
 해서는 준비기간을 보충하
 잡고 실력을 쌓아야 한다"고
 말한다. 한편의 전문지식
 만 아니라 타자나 외국어회
 등의 실력을 쌓아놓으면
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생
 의로 쉽게 취업이 될 수도 있
 다'고 말한다. 중소기업에
 는 취업정보센터나 고용서
 스센터 등의 구인을 의뢰하
 경우가 많으므로 이곳에
 장안소를 내놓고 있으면 기
 가 오기도 한다.

이화여대 취업정보실 表
 姫실장은 "중소기업이 안
 성이나 후생복지면에서 대
 기업에 따라지지 못하고 있
 나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적
 은 여대생의 경우에는 과
 하 선택해 보는 것도 좋다"고
 말한다.

한편, 최근 들어 여대생의
 광고대행사들이 여성들의
 기지중으로 등재하고 있
 컴퓨터관련종교 여성에게
 개발돼 있다. 특히 해마다
 성들의 취업준비가 다양해
 는만큼 새로운 분야에 관
 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.

〈金貞敬기자〉